

항상 우리의 곁에서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설날의 정겨움을 담아
여러분께 행복의 연을 날려드립니다.



역곡역 역장
김행균님

설 명절, 고향 가는 길 편안히 다녀오세요.

역곡역에서 역장으로 근무하는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 씨.
설날을 앞두고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 덩달아 마음이 쓰입니다.
정을 담아 늘 고객을 위한 김행균 씨의 삶을 응원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과 언론 간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곳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
에게 조정·중재신청 절차와 종합적 피해구
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
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
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facebook.com/pacnews

트위터 twitter.com/pac_news

Contents

2016 February Vol.188

04 인터뷰

한비아 /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07 미디어트렌드

플랫폼의 진화와 새로운 뉴스 읽기

08 문화토픽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최초의 오페라 '춘희'

09 세상읽기

미국 대선 과정이 흥미로운 이유

10 언론법 이모저모

범죄기사와 2차 피해

11 언중노트

기사삭제가 이루어지기까지

12 여행수첩

아들과 함께 한 포르투갈 여행

14 위원회NEWS

15 조정중재사례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6년 2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한라에드플러스(주) TEL 031-247-5141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힘!



1958년 생
국제홍보회사(버슨-마스텔라)한국지사 근무
1993-1999 세계 오지 여행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UN CERF) 자문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현)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저서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한비아의 중국견문록》, 《그건, 사랑이었네》,
《1g의 용기》 외

인터뷰 당일, 약속한 인터뷰 시간이 한 시간 늦어지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를 지하철에 안전하게 모셔드리고 오느라 하루종일 빼곡한 스케줄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었다고 한다. 세계 오지여행 경험을 담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사람들에게 〈바람의 딸〉로 알려진 그녀는 현재 일년의 절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머지 절반은 국제구호 전문가로 활동하며 세계시민학교 교장으로 재임 중이다.

Q. 〈변화와 도전〉의 아이콘, 한비아선생님의 최근 근황을 소개해주십시오.

A. 지난해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풀타임 박사과정에 있고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구호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에는 구호현장에서 일하는데, 이번 겨울방학에는 시리아에 다녀왔습니다. 또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을 6년째 맡고 있습니다. 〈좋은생각〉, 〈중앙일보〉 및 〈성서와 함께〉 등에 글을 쓰고, 교도소, 교육청 등으로부터 강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강도 나가고 있습니다.

Q. 네티즌이 만나고 싶은 사람 1위,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평화를 만드는 100인, 2014년 '차세대 리더 100인' 등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외부의 시선 중에서 마음이 뿌듯한 수사가 있습니까?

A. '팀장님' 하면 갑자기 현장 냄새가 나고 동지애가 생기면서 듣기 좋습니다만, 제일 듣기 좋은 말은 '누나', '언니'입니다. 저는 반 발짝 앞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피 흘리고 땀 흘리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958년생인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은 저를 '팀장님'으로,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은 '누나', '언니'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Q.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들을 통솔하는 리더로서의 노하우가 있으신지요?

A. 어떤 집단에서든 리더만큼 똑똑하지 않은 구성원이 없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리더는 공감하는 리더입니다. 사람에게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입니다. 두 번 듣고 한번 말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구성원들에게 말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리더가 하는 것이지만 구성원에게 이야기를 듣고 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 때와 모를 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Q. 〈한비아〉를 떠올릴 때 〈용기〉라는 단어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용기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A. 하자는 마음과 하지말자는 마음이 50:50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바로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용기를 조금만 보태면 하자는 쪽으로 확 기울게 됩니다. 1g의 용기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한비야 누나·언니가 앞으로 용기를 무한 리필 한다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1g의 용기가 필요할 때, 서로 1g씩의 용기를 주고받기로 지금 이 순간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요.

Q. 세계여행이 구호활동의 모티브가 된 것인가요?

A. 당연히 그렇습니다. 세계 일주를 하지 않았다면 구호활동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한 것도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를 보고 세계 일주를 했고, 국제홍보업무 한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자고 결심해서 2011년부터 구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딸'로 처음 알려지게 되어, 많은 분이 제가 긴급구호 활동을 15년 동안 한 것은 잘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까지 15년간 긴급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Q. 베스트셀러 작가, 오지 여행가, 국제구호활동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등 여러 직업을 두루 경험한 행복한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꼈습니까?

A. 각각의 일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5년간 진행해 온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일입니다. 여행은 혼자 다니며 혼자 즐거운 것이지만,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일은 저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 좋습니다. 긴급구호 활동을 다녀오면 해외 현장에 다녀온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곤 했습니다. 파키스탄 지진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마치고 발가락까지 부러진 채 절뚝거리며 돌아와 늦은 밤에 방송한 적이 있는데, 받아 적지 못할 정도로 후원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부를 하겠다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루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방송에서 제가 '아이들을 살려주세요.'라는 자극을 해서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교육을 통한 실천이었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세계시민학교를 세웠습니다. 2007년에 시작할 때는 연간 교육받는 사람이 5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만 명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들이 세계시민 학교를 통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으로 10년간 일할 계획이며, 이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Q.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이 많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십시오.

A. 구호활동 초기 아프가니스탄 구호현장에 갔을 때는 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었고,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모술> 지역에 있었는데 앞서 가던 차가 폭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0만 명이 사망한 인도네

시아 쓰나미 현장에서는 어떤 전염병이 있을지 모르는 시체 사이를 헤매며 구호활동을 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는 아프리카 말리에도 갔습니다. 구호활동을 하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치면 프로그램이 다 중지되는지라, 가장 안전하게 행동합니다. 놀랍게도 아프가니스탄 현장에서는 군인들보다는 NGO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위험한 직업이지만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각자 인생의 목표가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즐겁고, 자유롭게, 이왕이면 남을 도와주며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일이 저한테는 구호활동입니다.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하겠지요.

Q. 남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힘을 얻으시는지요?

A. 저에게 어떻게 인세를 몇억씩 기부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질의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근육을 조금씩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길거리에 무거운 짐을 들고가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것처럼, 조금씩 '돕는 근육'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철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에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연습입니다. 저는 '하루아침에'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서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한 발짝씩 나아가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일기쓰기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큰 결심을 할 때나 마음이 괴로울 때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기를 쓰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스프링노트에 볼펜을 꽂아두어 언제든지 바로 일기를 쓸 수 있는, 본인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일기쓰기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한비야의 일기장 앞뒤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한비야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비야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Q. <한비야> 선생님을 멘토로 삼고 희망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멘토는 누구였습니까?

A. 제가 다른 사람의 멘토라고 생각하면 조금 괴롭기도 합니다. 멘토는 많이 알고 있거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저는 기어서 딱 반 발자국 먼저 간 다음 제가 본 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어떠한 말을 듣고자 오는 친구들에게는 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제 인생 전반의 멘토는 없습니다. 사회적인 멘토는 저를 알아봐 주고 구

호활동으로 이끌어 주신 오태식 전 한국 월드비전 회장입니다. 패션, 요가 등 어떤 한 분야별로 멘토는 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닮고 싶다는 의미의 멘토는 제겐 없습니다. 그런데 멘토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의 의미라면, 제 멘토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글밭, 말밭을 주신 분, 그리고 언행일치를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든 세 가지, 일기를 쓰고, 산에 다니고, 세계지도를 바라보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Q.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람들은 정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체가 있다고 한들 그 두려움에 우리가 맞서 싸워보지도 않고 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20대에 했던 고민을 지금의 청년들도 할 텐데, 직장이 없든 청년들에게 세상이 더 캄캄하고 험하고 견뎌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용기, 하기 싫은 일과 힘든 일을 견디고 버티는 용기, 그리고 마침내 해내는 용기, 제가 그 용기를 어떻게 냈는지를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Q. <오피니언 리더>를 보면 그를 길러낸 어머니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늘 언급하였는데, <한비야> 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A. 아버지는 제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갈등이 있기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저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함께 겪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의 아버지는 사춘기를 겪기 전 제 영웅이었던 분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게 어떤 것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떨어진 이후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알았다'고 한마디 하시고, 대학에 다시 입학하기 전까지 6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대학에 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동안 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늘 저를 지지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제게 '딴지'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Q. 사회의 각 방면에서 갈등이 만연해있는 요즘,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을 통합하는데 오피니언 리더나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A. 언론이 갑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매체도 많이 늘었고 갑과 을로 나뉘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 년에 통상 약 3천 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니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사회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할 것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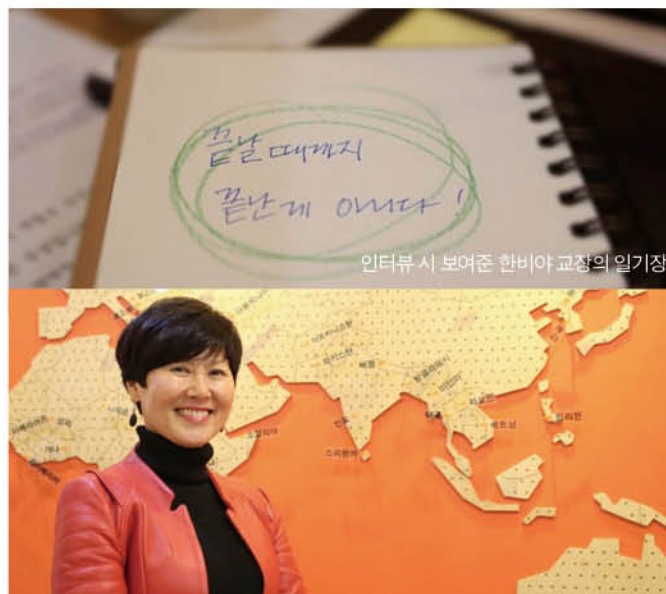
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각자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보도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준 사법기구입니다. 혹시 <한비야> 선생님이 당사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 해결하고 싶을 정도로 잘못된 언론기사가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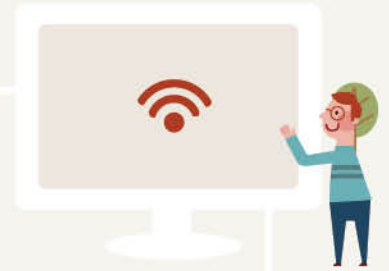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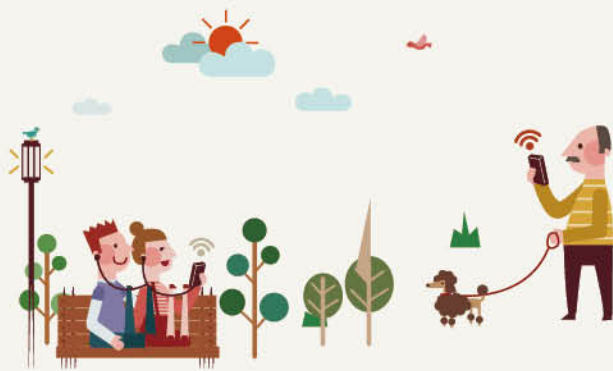
A. 제가 그다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제 말이 왜곡된 경험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자극적인 제목이 많아서 '좀 너무하잖아?' 정도의 느낌이 든 적은 있었습니다. 일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많은 인터뷰 내용 중 굳이 특정 내용만 부각한 사례가 있었는데, 언론사에서 먼저 전화로 설명해서 이해 하고 넘어간 적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으려 한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제가 언행일치, 표리동동表裏洞洞을 실천하면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Q. 4년 전 <사람의 지면> 인터뷰를 접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준다면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 영향력, 재능,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쓸 것인지 늘 정신을 차리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일기장에 쓰는 글귀처럼 '무엇이 본질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홍보팀 차장보)



플랫폼의 진화와 새로운 뉴스 읽기

아침에는 집으로 배달되어 온 신문을 읽고 저녁에는 9시 뉴스를 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과였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9시 저녁 뉴스를 시청하지만 요즘에는 뉴스를 보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뉴스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 독자나 시청자들은 특정 매체에만 적용되는 용어로,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을 독자라고 해야 할 지, 시청자라고 해야 할 지 애매해졌다.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제작한 뉴스를 동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게 되는 경로는 단일하고 폐쇄적인 것이었지만 뉴스 제작·배포·이용까지의 과정들이 열렸고 복잡해졌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새로운 뉴스 플랫폼에서 뉴스 읽기의 변화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이 뉴스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은 인터넷을 시작하는 대문으로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시작할 때 처음 거치게 되는 사이트이다.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는 검색 서비스, 커뮤니티, 디렉토리 서비스 등을 같이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데 뉴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하면서 포털이 보여주는 뉴스를 읽거나 '실시간 검색어' 등을 통해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인터넷 포털이 뉴스 플랫폼으로 활용되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뉴스는 읽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뉴스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다른 장소는 SNS이다. 뉴스 제작자 입장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열린 셈이다. 2015년에 페이스북은 뉴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인스턴

트 아티클'을 시작했다. 기존 언론사들은 페이스북에 뉴스를 업로드하고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보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공급 창구로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페이스북은 새로운 뉴스 플랫폼으로 역할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최근 우리나라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어 우리나라 기사도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뉴스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정 사이트들이 있다. 여러 곳의 뉴스를 한 데 모아서 제공하는 사이트나 콘텐츠를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뉴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버즈피드 Buzzfeed를 들 수 있다. 버즈피드는 리스트클 Listicle을 유행시킨 것으로 유명한데 리스트클은 리스트와 아티클의 조합으로 '~하는 10가지'와 같은 유형의 기사이다. 이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언론사에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뉴스와는 내용과 형식에서 다르다. 버즈피드는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내용에 주목하며 모바일로 제공하는 포맷이 일반적이라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춘 분량과 형식으로 구성된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지만 새로운 소식이면 무조건 뉴스라고 할 수는 없다. 뉴스 제작, 배포, 소비의 과정이 변했고 제작자와 소비자가 달라졌으며 뉴스를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하는지도 모호해졌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은 모바일 온리 Mobile Only, 네트워크 사회,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발전의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서 뉴스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변화가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회의 더 큰 변화에서 뉴스 읽기도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임은 틀림이 없다.



오페라 '춘희'

—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최초의 오페라 —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오페라 작품 중 하나를 말하라면 단연코 베르디 작곡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가 꼽힐 것이다. 1853년 발표된 이 작품은 비교적 베르디의 초기작에 속하지만 그의 명성이 서서히 알려지고 작곡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을 무렵 등장한 작품으로 젊은 베르디의 신선하고도 파격적인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오페라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여인' 정도로 해석되는 '라 트라비아타'가 우리에게 '춘희(椿姬)'라고 많이 알려진 이유는 일본의 영향 때문이다. 이 오페라가 소개된 20세기 초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있었으므로 일본 번역을 따라 '춘희'라고 불리게 되었다.

일본에서 이 작품이 '춘희'로 불리는 것은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원작소설 제목이 '동백꽃 부인(La Dame aux Camélias)'인 것에서 유래했다. 항상 가슴에 동백꽃을 달고 다니던 파리 사교계 최고의 고급 창부 마그리트가 부르주아 청년과 나누는 짧고도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를 다룬 이 소설은 큰 성공을 거두며 연극으로 공연되었는데 마침 당시 파리에 머물던 베르디가 그 연극에 감명을 받아 만든 것이 바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이다.

화려하고도 애절한 선율과 여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이 언제 보아도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이 작품은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된 오페라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 전막 공연이 아닌 하이라이트만 공연하는 형식의 콘서트는 있었지만 제대로 무대의상을 갖춰 입고 드라마를 살려 공연하는 전막 오페라는 1948년 1월 16일에 열린 오페라 '춘희' 즉, '라 트라비아타' 공연이 한국 최초인 것으로 기록된다. 해방 후 어수선했던 시국에 명동 시공관 무대에 오른 서양의 낯선 볼거리는 뜻밖에도 5일, 10회의 공연 기간 동안 매진사례를 거두며 3개월 뒤 재공연할 정도로 큰 성과를 남겼다. 여주인공인 비올레타 역은 소프라노 김자경과 마금희가 출연

했고 알프레도 역은 단독으로 테너 이인선이 공연하는 등 성악을 서양식으로 교육받고 공부했던 많은 아이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재미있는 것은 훗날 국립 오페라단 단장을 지내며 우리나라 성악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활약한 베이스 오현명도 "저녁 식사 준비 다 되었소" 단 한 소절을 노래하는 하인 역할로 출연

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서울대 음대 학생이었다. 두 사람의 비올레타를 비롯한 출연진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오페라를 공연한다는 감격과 설렘에 출연료와 열악한 환경도 개의치 않고 온 힘을 다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공연준비에 임한 나머지 부작용도 있었는데 소프라노 마금희는 관객들에게 더욱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자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수시로 날달걀을 삼키다 그만 배탈이 나서 3일째부터는 김자경 혼자서 하루 2회의 무대에 서야 했다.

요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한국 최초의 오페라를 기획하고 무대에 올린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이 공연의 알프레도 역을 맡은 테너 이인선이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의 의사였던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도 성악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않았다. 의사가 된 뒤 최초로 이탈리아로 성악 유학을 떠난 그는 귀국 후 번역, 제작, 주역에 이르는 일인 다역을 해가며

노력한 끝에 마침내 최초의 오페라를 이 땅에서 공연하게 된 것이다. 오페라는 크게 성공했지만 경영에는 어두웠던 관계로 그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살던 집과 피아노까지 처분해야 했다는 안타까운 후일담도 전해진다. 테너 이인선은 이후 아까운 나이로 타계했으나 김자경을 비롯한 우리 오페라 1세대들이 대부분 그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한국 오페라의 토대를 만든 것을 생각하면 그가 남긴 공로는 지대하다. 그때의 주역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베르디의 음악과 그들의 열정만은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



출처 : 조선오페라단 제공

미국 대선 과정의 흥미로운 이유



올해 내내 치러질 미국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경선 레이스와 본선 싸움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 지금 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론은 어떻게 흐를지 대강 보인다. 그런 것들이 곧 미국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다른 나라 대선에 뭘 관심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렇지만 미국 정치가 전 세계의 경제·안보는 물론 대부분 국제 질서의 구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싫든 좋은 흥미를 좀 가져보는 게 좋다. 관점을 갖고 말이다.

우선 공화당 경선.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대선 게임의 최고 흥행 요소다. 경선 초반에 누구도 그가 이런 대박을 터뜨릴지 예상 못했다. 거대한 유산을 받은 부동산 투자의 귀재가 정치에 뛰어들어 거침없이 막말하고, 무조건 비난하며,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외친다. 열광하는 관중들 앞에서 애당초 가장 앞서갈 것으로 보였던 정치 명문 집안의 모범생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존재감은 약해 보인다. 오죽하면 트럼프 주의(Trumpism·트럼프가 무슨 막말을 하건 무조건 지지하는 현상)라는 말까지 생겼

66

선거라는 게 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는 과정을 거치긴 한다. 비주류가 승리하는 경우도 드물다. 하지만 소수자·약자·실패자를 거칠게 비하하는 막말이나 기득권을 뒤집어엎자는 주장은 예전에 비하면 과격한 언동들이다. 일단 그게 먹히는 게 지금의 미국이다.

99

을까. 역시 막말이 강했던 알래스카 주지사 출신 세라 페일린 전 부통령 후보도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으니 막말 기조는 끝까지 이어질 것 같다.

트럼프 인기의 배경에는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의 불만, 진보적 흑인 대통령에 대한 우파의 반감, 테러 공포, 소수민족 확장에 따른 백인들의 불안감 등이 깊이 배어 있다. 그런 속내를 파고들며 우파 진영 내에서 확실한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전통적 가치인 개방, 포용, 자유보다는 폐쇄주의, 이기주의, 진영 논리 같은 것들이 득세하는 분위기마저 보인다.

보수 주류들의 견해에서 보면 정상궤도 이탈이다.

그래서 공화당 주류 내에서는 후보교체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다간 미국이 망가진다고 보고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인 1970년생 테드 크루즈를 미는 것이다. 미국 주류의 전형인 백인·보수 우파 기독교도로, 정책 면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오른쪽인 것도 많다. 트럼프가 전당대회 때까지 이 기세를 몰고 갈지가 공화당 경선의

최대 관심거리다.

새해 들어 민주당 경선에선 뜻하지 않은 돌풍이 일 조짐이다. 뱅가드 사건이나 이메일 사태가 있었지만, 줄곧 힐러리 클린턴이 대세였다. 그런데 무소속인 버몬트주 연방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75)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4월에야 대선판에 뛰어든 그는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이다. 미국 정치에서 사회주의자는 거의 표를 얻지 못한다. 그런데 1월 중순 사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경선이 가장 먼저 치러지는 아이오와주(2월 1일)와 뉴햄프셔주(9일)에서 클린턴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언론들은 그동안 그를 거의 취급 하지 않았었다.

이유는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데 있다. 선거자금으로 클린턴은 대기업으로부터 뭉치 돈을 받지만, 샌더스는 소액 다수가 대부분이다. 그는 부유층 15명의 재산이 하위층 40%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경제 체제, 탐욕스런 월가의 부호들, 약자 차별,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대외 정책을 신랄히 비판한다. 한마디로 미국 내 불평등을 심판해야 하며 그 일을 정치가,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샌더스는 클린턴을 진보의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몰아세운다.

양당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의 기저에는 관통하는 기류가 있다. 바로 기득권에 대한 엄청난 불만과 변화 욕구이다. 미국의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어느 때보다 미국은 이념·인종적으로 분열됐고, 빈부 격차가 심해졌으며, 정치 불신이 도를 넘었다고 본다. 선거라는 게 늘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는 과정을 거치긴 한다. 비주류가 승리하는 경우도 드물다. 하지만 소수자·약자·실패자를 거칠게 비하하는 막말이나 기득권을 뒤집어엎자는 주장은 예전에 비하면 과격한 언동들이다. 일단 그게 먹히는 게 지금의 미국이다. 올해와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할 우리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미국 경선과 대선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더 흥미로운 것이다.



범죄기사와 2차 피해



지난 1월 중순 경기도 부천시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3년 전에 터진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을 뿐이다. 30대의 젊은 아버지는 10살이 채 안 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모자라 아들의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했다.

이번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특히 쏠리는 이유는 살인 자체보다 시신훼손에 있는 듯하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살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강력범죄가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부모에게 학대받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상당수의 언론이 시신훼손에 주목하여 이번 사건을 아예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라 명명하고 있다. 아들을 죽였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패륜적이지만 그 시신을 훼손한 후 집 안에 보관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시신훼손이 살인만큼이나 심각해 보이는데 법적으로도 과연 그럴까. 우리 형법에서 시신훼손은 '사체오욕죄'로 다루진다(형법 제159조). 사체오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비교적 가벼운 죄에 해당한다. 사체오욕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2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와는 죄의 경중에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크다. 또, 사체오욕죄는 생명이라든가 건강, 명예, 재산과 같은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다.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그중에서도 장례 방해·분묘 발굴과 같은 신앙에 관한 죄 중 하나로 취급된다. 결국, 죄의 경중으로만 따지자면 이번 사건에서 시신훼손은 살인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 중에는 단순한 사실보도를 넘어선, 눈에 띄는 심층 분석기사도 있다. 한 중앙일간지에서 1면 톱으로 낸 <40개월... 누구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가 대표적이다. 많은 매체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기 전 맥주와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등 범행 재연을 태연히 했다는 등 감정적인 보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차분히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문제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다만, 잘 쓴 기사에도 뜻밖에도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그 후 학교가 한 일은 최 군 집으로 '출석 독촉

장'을 두 차례 보내고, 최 군이 살던 곳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며 죽은 아이가 다녔던 학교와 담임교사의 무관심 내지는 부실대처의 문제를 지적한다. 물론, 기사 어디에도 학교나 담임교사의 입장은 게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기사에 나온 내용만으로 학교 측의 대처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문제 상황 속에서 학교 측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을 따랐지만 매뉴얼 자체가 부실했던 것인지 불확실하다. 만일 후자에 해당한다면 부실 대처로 인한 비난은 학교나 담임교사의 몫이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고 일선 학교에 하달한 교육부나 교육청이 받아야 할 것이다.

심각한 범죄가 터질 때마다 언론은 범죄행위 자체를 알리고 범죄자나 그에 관련한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입는 부당한 2차 피해는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012년 나주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이후 우리 언론계에서 범죄보도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 사건 기사로 인해 몇몇 언론사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을 당해 법원에서 그 일부 책임이 인정되기까지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범행 관련 무수한 보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온다. 앞에서 언급한 학교나 담임교사의 피해 외에도 지나치게 자세한 범행 묘사라든가 죽은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자칫 또 다른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부모가 구속된 후 보호시설로 보내졌다는 딸아이가 언젠가는 이번 사건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될 텐데 언론에 문제아로 그려진 자기 오빠나 악마처럼 묘사된 부모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일까. 정답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범죄 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할 이유라는 점이다.



“다 싫어요. 지워주세요” 기사삭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람 중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했지만, 이야기를 듣다보면 내심 해당 기사가 삭제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 일상화되고 인터넷 기반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가 활성화되다 보니, 검색하면 언제든 문제의 기사가 내 눈앞에 등장해서 심사를 불편하게 한다. 종이신문이나 방송은 지나가면 끝이었는데, 인터넷 기사들은 사람들이 블로그나 SNS에 퍼 나르기까지 한다. 평생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닐 것 같아 깔끔하게 다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다.

한 기업 내 노사갈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기사가 인터넷신문에서 수차례 보도됐다. 또 감사기관에 진정서가 제출되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사가 인터넷에 뒀다. 두 경우 모두 당사자 간 다툼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도의 기업과 피진정인은 억울하다. 또 관련 기사로 인해 노사협이나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우선 보도내용이 허위이고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는 기사삭제가 되지 않으면 언론사와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자체가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게 싫은 것이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청구권은 정정 및 반론 등 보도계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사삭제를 원하더라도 우선은 보도계제 청구권을 근거로 해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기사가 삭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합의에 따른 기사삭제라는 것이다. 피신청

인 언론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중재부가 청구취지에 없는 기사삭제를 권유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우리 법원은 명예권을 인격권의 일종으로 보고, 인격권 침해로 이유로 한 기사삭제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재판부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해당 기사의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즉, 보도내용이 허위이거나 공익성이 없고, 이로 인한 명예훼손이 중대할 것을 필요로 한다. 만약 앞의 사례에서 노사갈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노조 조합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하였다면, 또 진정서 제출이 사실이고 기사가 입수한 진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면 어떨까. 보도내용이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공정한 지면 할애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사삭제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당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와 같은 일방적인 보도는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양당사자 중 한쪽의 편에서 연속보도하는 언론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보도가 나오기 전에 좀 더 신중하고 공평했다면 더 없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무위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삭제를 할 때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요구한다. 언론의 표현을 강하게 보장하는 만큼 쉽게 쓰인 기사가 아니길 바란다.

아들과 함께 한 포르투갈 여행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12일 한국을 출발해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3년에 걸쳐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에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엘리바도르 산타 후스타 전광대에서 바라본 리스본 구시가지. 가운데 광장이 로사우 광장이다.

아빠, 공부 좀 해!

“아빠, 공부 좀 해!” 필자와 고3에 올라갈 나이였던 둘째 아들의 포르투갈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해 숙소에 여장을 푼 다음, 시내로 향할 때 아들이 거칠게 대들었다. 여행 코스를 자신에게 맡기고 졸졸 따라오며 질문만 하는 아빠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다.

“아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따라다닌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

“아빠도 책을 봤는데, 복잡한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

“그건 기본적인 거지. 응? 베이징에 가서 자금성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니냐? 아빠가 공부하면서 여행하라며? 아빠는 공부 안 해?”

거칠게 대드는 둘째가 한편 패썹하고 버릇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허허, 많이 컸다 이거지!’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그때 우리는 아내와 첫째 아들을 포함해 온 가족이 세계 일주 여행에 나선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고, 당시 모습이 처음 여행에 나섰을 때와 달라도 너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6개월 전 중국에 첫발을 디딜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필자와 아내가 여행 일정을 잡고, 숙소나 식당도 정해서 끌고 다녀야 했다. 한자를 이용한 필담과 더듬거리는 영어로 일일이 통역해서 알려주어야 했다. 하지만 네팔과 인도까지 아시아에서 3개월, 터키에서 그리스,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대륙을 3개월간 시계방향으로 누비면서 아이들이 여행의 주역으로 나서기 시작

했다. 특정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이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여행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포르투갈의 ‘가이드’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가 아빠의 소극적인 태도에 격하게 반발한 것이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아빠도 노력할게.” 애써 아들을 달래야 했다.

아들과의 냉랭한 기운은 조금 더 지속되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다. 리스본의 약간 덜 개발된 듯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금세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포르투갈은 어떤 나라인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던 시기, 중남미 대륙을 호령하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나라 아닌가. 더구나 리스본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둘째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 아닌가. 아내와 첫째가 산티아고로 가자고 할 때도 둘째는 리스본으로 가겠다고, 대항해 시대의 유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던 곳 아니었던가.

18~19세기의 풍모를 간직한 리스본

실제로 리스본은 멋진 곳이었다. 이미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그리스와 이탈리아, 프랑스의 유적을 6개월 동안 질리도록 돌아보았던 우리의 눈에도 리스본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리스본 시내를 돌아볼 수 있는 엘리바도르 산타 후스타 철제 전광대에 오르자 리스본 전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저 아래 쪽이 바이샤 지구고, 이쪽 높은 곳은 바이루 알투 지구래. 이 탑은 30m인데, 파리 에펠탑을 만든 구스타프 에펠이

Portugal

1902년 설계했다.” 아들이 가이드북을 보면서 설명했다. 그가 가이드의 본분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하, 그렇구나. 저 건너편에 있는 게, 음, 상 조르제 성이고, 저 아래가 테주 강. 하하하.” 내가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는 다시 여행자 모드로 돌아갔다. 세계를 주름잡던 전성기를 뒤로한 배우의 화려하진 않지만 우아한 자태를 보는 것 같았다. 건물들은 대체로 5~6층 높이로,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고풍스러운 멋을 풍겼다. 건물들의 흰 벽과 그것을 덮고 있는 적갈색 지붕이 하늘에서 무차별적으로 내리쬐는 투명한 햇살에 속살을 드러냈다. 그 뒤로 바다처럼 넓은 테주 강 하구가, 시가지 너머 언덕엔 상 조르제 성이 버티고 있었다.

주요 볼거리들은 중심광장인 로시우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에 밀집해 있어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었다. ‘땡! 땡! 땡!’ 경적을 울리며 천천히 지나가는 노란색과 빨간색 트램을 타기도 했다.

마치 18~19세기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로시우 광장과 테주 강변의 코메르시우 광장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8~12세기 이곳을 지배했던 북아프리카 이슬람 세력이 건설한 성 조르제 성은, 성의 웅장함도 그렇지만, 거기서 바라본 리스본은 환상적이었다. 성벽을 따라 구비를 돌 때마다 풍경이 달라졌다. 태양이 서녘으로 누엠틈기우는 가운데 흰 구름이 동동 떠다니는 하늘과 건물들의 붉은 지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아들과 아이스크림을 핥으면서 10년 후 다시 오고 싶은 도시를 꼽으라면 리스본을 꼽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유라시아의 대륙의 땅끝에서 서서

필자와 둘째 아들은 1주일 동안 포르투갈을 여행했다. 리스본에서 출발해 대학도시 코임브라, 15~16세기 선박 건조와 해상무역의 거점이자 오늘날 포르투갈 제2의 도시인 포르투까지 돌아보았다. 포르투갈 여행의 필수코스다. 코임브라는 유럽에서 가장 긴 700년의 역사를 지닌 코임브라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로, 낭만과 평화, 여유가 넘쳤다. ‘공부는 코임브라에서 하고, 돈은 리스본에서 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아들이 가이드북에서 발견하고 어렵게 찾아간 콘테(Adega Paco



리스본의 명물 트램. 지금도 여행자와 주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de Conde) 식당의 요리는 잊을 수가 없다.

포르투는 ‘대항해 시대’의 거점 도시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랜드마크인 클레리구스 타워, 쌍둥이 성당인 까르무 성당과 까르멜리타스 성당,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텔로 서점, 불사 궁전, 카테드랄 등 다 열거하기 어려운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45m 깊이의 협곡을 이루며 흘러가는 도루 강과 강변의 대규모 와이너리, 지금은 관광객을 위한 식당과 숙소, 노천카페로 바뀐 과거 상인들의 숙소 및 주거지의 풍취도 잊을 수가 없다. 포르투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인 로까곶, 까보 다 로까(Cabo da Roca)다. 우리도 기차를 타고 신트라에 내려 모루스 성과 페나궁전을 돌아본 다음 다시 버스를 타고 40분 달려 로까곶에 도착했다. 로까곶에는 “여기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는 포르투갈 국민시인 카몽이스의 시귀가 새겨진 돌탑과 등대가 대서양을 건너온 바람을 의연히 맞고 있었다. 망망대해가 펼쳐졌다. 대륙을 건너온 우리에게도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아들은 혼자서 해안으로 이어진 언덕을 따라 계곡을 넘어 한참을 돌아다녔다. 아주 멀리까지 걸어가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과연 그곳이 땅 끝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대륙의 끝이다!” 하고 외치며 발길을 돌렸지만, 호기심과 모험심이 넘치는 사람들은 망망대해를 향해 돛을 올리고 배를 띄웠다. 그들에겐 대륙의 끝이 아니라 신대륙으로 향하는 출발점이었다. 우리에게도 그러했다. 포르투갈을 여행하면서 아들은 혼돈을 거듭하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모종의 결단을 내렸다. 새로운 출발의 땅이었다.

가족과의 여행, 특히 성장기 아이들과의 여행은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게 된다’는 말처럼 가족 구성원 각자가 독립적인 주체로 있다. 부모가 모든 일정을 짜고 아이들이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유적이라도 길만 보게 되는 것이다. 포르투갈 여행을 시작할 때 “아빠, 공부 좀 해!” 하고 아들이 대든 것은 그가 부모의 벽을 뛰어 넘어 독립적인 인격체로 나아가는 신호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러했기에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포르투갈의 선조들이 대륙의 끝에서 새로운 항해의 돛을 올렸듯이, 우리에게도 포르투갈은 새로운 가족관계의 출발점이 된 뜻 깊은 곳이었다.

로까곶에서 필자와 둘째 아들. 아들의 머리가 길게 자라 6개월 동안 여행한 ‘티’를 내고 있다.



COMMISSIONERS 위원동정

· 신임 중재위원 위촉



1월 13일자로 부산중재부 전정숙 위원(변호사)이 위촉됐다. 임기는 2018. 8. 31. 까지이다.

· 중재위원 사퇴

중재부	성명	사퇴일자
서울제5중재부 중재위원	이기우	2015. 12. 31.
부산중재부 중재부장	김홍일	2016. 1. 4.



· 김영일 위원(충북중재부, 전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이 청주보호관찰소 특별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선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대학언론 기자 대상 교육

위원회는 1월 19일 교수신문이 주최한 제20기 '전국 대학언론 기자학교'에서 각 대학 학보사 기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언론분쟁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위원회 교육콘텐츠팀 이예찬 강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언론분쟁 예방상식'을 주제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분쟁 사례와 취재보도 시 주의점 등을 흥미 있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숭실대학교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기자학교의 교육 일정에는 최규구 전 앵커, 김진열 감독, 손미나 작가 등 유명 강사진도 함께 했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미디어 인터뷰 진행

1월 21일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가 운영하는 교육기부 웹진 〈에듀드림〉에서 위원회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취재했다. 위원회는 교육기부 사이트에 2014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처음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안내해 오고 있다. 〈에듀드림〉 담당기자는 교육 프로그램을 방청하고 교육강사와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법적 소양을 쌓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초·중·고생 대상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2010년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 모니터링 강화

위원회는 올해 시정권고 전문심의위원 8인을 임용하여 인터넷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정권고 전문심의위원은 서울사무처에 4인, 부산·광주·대전·경기 지역사무소에 각 1인이 배치되어 상근하며, 위원회에 상근하며 약 2,000여 인터넷 매체의 법익침해 여부를 전담 모니터링한다.

언론사람

01

2016 January vol.187

언론법 정보자료

디지털 혁명 시대에 필요한 언론중재법 개정

김수일, 서울지방법원 부장

언론노트

북집 사장이 조정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김우현 (광주지방법원 부장)

미디어트렌드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 취재 (고재환, MBC (대행) 기자)

여행수첩

페루 아마존의 밤

송하나 (1인/여행전문블로그)와 본담

세상읽기

생활 속 노물레스 오물리주

김원호 (대전지방법원 부장)

인터뷰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심재철 원장

0453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A 11층 (주)한국언론진흥재단

T.02-397-2114, 244, 254 F.11번 언론자유실 T.02-397-2000 E. info@nlb.or.kr H.11, 207, 209

Copyright © 2016 The Press Publication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언론사람 뉴스레터 발행



언론중재위원회가 매월 위원회 소식, 언론 관련 이슈, 문화 정보 등을 담아 발행하는 대외홍보지 『언론사람』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2016년 1월부터 『언론사람』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면으로 발간되는 『언론사람』의 주요 콘텐츠를 엄선하여 매월 초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뉴스레터나 모바일로 『언론사람』 소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메인화면 하단 〈뉴스레터 신청〉 코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01

A 방송은 갑자기 쌀쌀해진 기상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출근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촬영하여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초상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A 방송사는 신청인을 비방하지 않는 통상의 방식으로 거리 풍경을 촬영했고, 공공장소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보도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공공장소에서의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보도에 신청인의 초상을 반드시 넣어야 할 필연성이나 긴급성 등이 없어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A 방송이 이 사건 접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점과 신청인의 초상 노출 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50만원 지급 및 VOD 삭제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사용,
정정보도 결정

02

B 방송은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과 관련된 행사 소식을 전하며 타 방송사인 C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의 화면과 함께 '비속어와 인격비하표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C 방송사는 자료화면으로 언급된 프로그램은 해당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바 없고,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지도만 받았을 뿐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B 방송은 이 사건 보도는 행사 소식을 전하기 위한 보도로서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신청인 C 방송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 및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해당 프로그램이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인정되므로 정정보도는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해당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얼굴 합성한 사진 무단 사용,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03

D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세쌍둥이인 신청인들의 백일 사진을 친권자의 동의 없이 수차례 방송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비록 세쌍둥이의 사진 중 얼굴 부분은 출연자들의 얼굴로 합성되어 있지만 세쌍둥이 사진은 희소성이 있어 주변에서 신청인 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세쌍둥이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 D방송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으나, 해당 사진에는 신청인들의 붉은 색 옷과 다리 및 발의 일부분만이 노출되어 신청인들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신청인 들임을 식별할 신체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신체 부분으로 특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가 된 사진은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만으로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측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했고 조정이 성립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



『이달의 100자평』 공모

PC나 모바일로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에 접속하시면

『**이달의 100자평**』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이달의 100자평**』 2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트콘(아메리카노 2잔 교환권)을 드립니다.

선정되신 분은 2월 22일(월)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운영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 신문, 잡지, 뉴스통신의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자체심의를 합니다.
- 후보자(출마 예정자)는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의 조치내용 :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 사실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권고 결정
- 후보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처리합니다.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